

전 남

태풍·벼멸구 피해 예방하고 햅쌀시장 선점

전남 벼 조기재배 확대

전체면적 10% 4월 모내기 8월 수확... 전량 계약재배



219억원의 부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남도는 올해 전체 재배면적의 10%인 1만9000여ha에 조생종 품종을 조기 재배해 쌀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을 생산하기 위해 밥맛 좋은 윤광벼 보급률이 공급된다. 일부 지역은 조생 참벼와 흑미 등 기능성 쌀을 동시에 생산해 다양화와 함께 틈새 유통 시장을 석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태풍피해가 심한 여수, 고흥, 장흥 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단지 10개소 200ha가 조성되며 RPC(미국 종합처리장)와 전량 계약재배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4월 중·하순에 모내기를 해 추석전인 8월 하순경부터 수확하는 조기재배는 소비자가 원하는 맛 좋은 햅쌀 공급으로 전남 쌀의 지속적인 판매량 구축과 함께 택사·시금치·미나리·청보리 등 후(後) 작물 재배로 농경지 이용률 향상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8515ha에서 고품질 햅쌀 8만3000t을 조기에 생산해

김을배 생명농업기술과장은 "올해 추석이 9월12일로 어느 해보다 빨라 4월 중·하순에 조생종 품종을 모내기해야 추석 전에 햅쌀을 생산할 수 있다"며 "순도 높은 품종을 지금부터 확보해 고품질 햅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항암효과 탁월 '죽향 담양부추'

라 불리며, 항산화 작용과 항암효과도 뛰어나다.

담양군 대전면 응유리 '죽향 담양부추' 작목반원들이 겨울부추 수확에 한창이다. 부추는 간과 신장질환에 효과가 좋아 '간의 채소'라 불리며, 항산화 작용과 항암효과도 뛰어나다.

나주시, 예산 1896억 상반기 조기집행

나주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1896억원을 조기집행한다. 이는 2011년도 조기집행 대상 예산 3304억원 가운데 57.4%에 해당된다.

정 사업, SOC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나주시는 서민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일자리사업을 비롯해 서민생활안

행을 추진했던 과거와는 달리 남비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집행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구성해 ▲조기집행 추진상황 분석관리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시책 ▲합동설계반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올해 첫 시행되는 '농지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병선 지사장은 "상시 상담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간오지·섬마을로 문화가 찾아옵니다

도, 미술·공연 등 지역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는 산간오지와 섬 등 문화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찾아 문화배달' 사업을 연중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급적 오지 낙도를 우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이달중 주관단체를 선정해 3월부터 11월까지 농어촌과 산간 오지, 섬지역 등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대중예술, 미술, 전통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분야를 총괄하고 이동이 용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전남도내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로 최근 2년간 활동실적이 있고 도내 전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한 단체여야 한다. 국공립 소속 예술단체와 종교적인 성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비전문 동호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관안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예술 기반시설과 문화예술 단체가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 문화격차가 심각하다"며 "농어촌과 섬 지역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소득수준이 낮아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률이 저조해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어촌공 담양지사 농지은행사업 박차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지사장 나병선)는 올해 사업비 46억원을 확보,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전업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은행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농지은행 사업'은 ▲농지매입 수탁 ▲농지매도 수탁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비촉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 직불사업'은 10년이상 영농한 종사한 65~70세의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 이양할 경우 ha당 연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농지매매와 장기 임대차로 전업 농업인의 영농규모를 확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이 밖에도 올해 첫 시행되는 '농지연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병선 지사장은 "상시 상담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억대 농수축산 농가 370가구 달성”

강진드림팀제 맞춤형 성과지표 1631개 확정

전국에서 유일하게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강진군이 올해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맞춤형 성과지표를 확정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2011년도 강진드림팀제 성과지표'는 군정 업무보고시 군수의 의견 제시사항, 실행사업소장 및 전 팀원과의 토론회, 읍면장 회의 등 심층 분석과정을 거쳐 총 1631개 지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지표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강진군은 농·수·축·임업의 전문화 및 차별화로 ▲농어가 가구의 소득향상 ▲음식·숙박업 문화개선 ▲지역교육 발전과 스포츠 마케팅 강화 ▲공무원 친절도 향상 ▲전

민 에너지 소비절약 동참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발굴한 핵심 지표를 살펴보면 ▲1억원 이상 소득 농업농가 130가구·수산업가 90가구·축산농가 135가구·임업농가 15가구 달성 ▲1억원 이상 매출 음식점 90개소·제조업체는 110개소 달성 ▲청자도에 12개업체 육성 ▲귀농자 100가구에 300명 유치 ▲농·특산물 유통 고속도로망 확충 300명 ▲청자축제 경영사업 확대 ▲폐교된 군동중학교 대안학교 설립 ▲(주)스프츠 강진 법인 설립 ▲제주-마량간 여객선 운항 ▲국·도비 유치사업단 운영 ▲공공청사에너지 소비절약 등으로 총 133개의 새 지표를 마련했다.

특히 읍·면 성과지표의 경우 2010년과 달리 2011년도에는 ▲벼대체

소득 작물 재배면적 확대 600ha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3000ha ▲쌀·대봉감·무화과·단호박·시금치 등 틈새 소득작물 재배농가 640가구 육성 ▲읍면 특성에 맞는 역점사업 발굴 추진 ▲마을별 1일 방문대학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엔 확정된 성과지표를 기초로 자체 평가반을 구성해 오는 6월 30일 기준 중간점검을 거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서별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평가는 강진군의 전체 5개 평가군(사업부서 1군, 사업부서 2군, 지원부서, 사업소, 읍·면) 44개 부서로 나눠 1000점(핵심지표 960, 공통지표 40+가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 우수부서는 성과급 지급과 함께 근무성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성 명품 쌀막걸리 키운다

농기센터-청산농수 업무협약

장성군이 최고 품질의 명품 쌀 막걸리 집중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장성군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주)청산농수와 '명품 쌀막걸리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군과 (주)청산농수는 대표 막걸리인 '사미인주' 제조에 쌀·풀 등 지역 농산물을 의무적으

로 사용하기로 하고, 생산·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와 홍보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전담 TF팀을 구성, 자동차 살비시설 및 체질전시관매장 구축을 지원하고, 양조용(설경) 벼 우량종자 채종단을 운영 등 후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의 막걸리를 국내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키우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활성 소비 촉진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lease, including locations like Gwangju, Jeonju, and various district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agents.